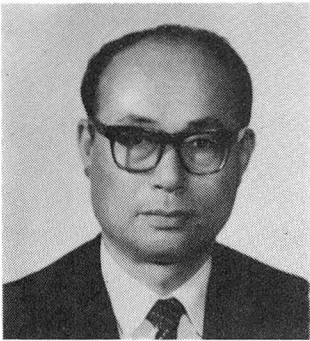


# 설비충족과 반복훈련이 관건



선 병택  
〈한양대학교 교수〉

인간생활은 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화재의 위협이 따라 다니는 환경이라 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주변의 재해중에서 화재, 특히 고층건물 즉, 소방용 사다리가 그렇게 유효하지 않은 건물내에서의 화재는 되도록 발생을 제지할 수 있다면 가장 상책이라 하겠다.

우리들은 고층건물 특히 새로운 생활양식에 그렇게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가면서, 침대에 누워서, 그리고 차안에서와 같이 장소와 노유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잘 피우고 아무렇게나 버리는 습성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화재의 발생을 없애는 것으로 할 수는 없다.

더우기 고층건물내에서 발생했을 때 우선 첫째 인명보호, 둘째(건축공간내에 있는) 재산의 보호, 셋째(건축공간이 형성한) 건축물의 보호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에 대하여 고층건물은 건축법과 소방법에 적합한 기계환기, 중앙관리방식의 공조설비로 그 제어와 작동의 감시를 중앙관리실에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배연설비에 대해서도 인명존중의 견해에서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어 이의 제어 및 작업상태의 감시를 중앙관리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관리실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항상 상주제원이 근무하는 제도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 방재설비와 빌딩관리에 필요한 설비의 관리를 겸한 인원이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 설비와 제도를 충족시킴으로써 빌딩관리의 안전과 인력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여기에 거듭 반복되는 훈련과 충성을 다하는 직원정신이 가미되어야 한다.

기능상의 분류는

- 1) 방재활동 및 일반관리 중심.
  - 2) 화재의 조기발견과 통보, 피난 유도, 초기소화와 기타 원인에 의한 비상사태에 대한 활동중심.
  - 3) 소방기관의 본격적 소화활동 지휘중심.
  - 4 중앙관리실의 최적 위치설정.
- 관리실은 방화적으로 구획되고 내부는 불연재로 되어 있어야하며 출입구가 2개소 이상 있고 빌딩관리자와 소방대가 동시에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넓이가 필요하다. 그리고

